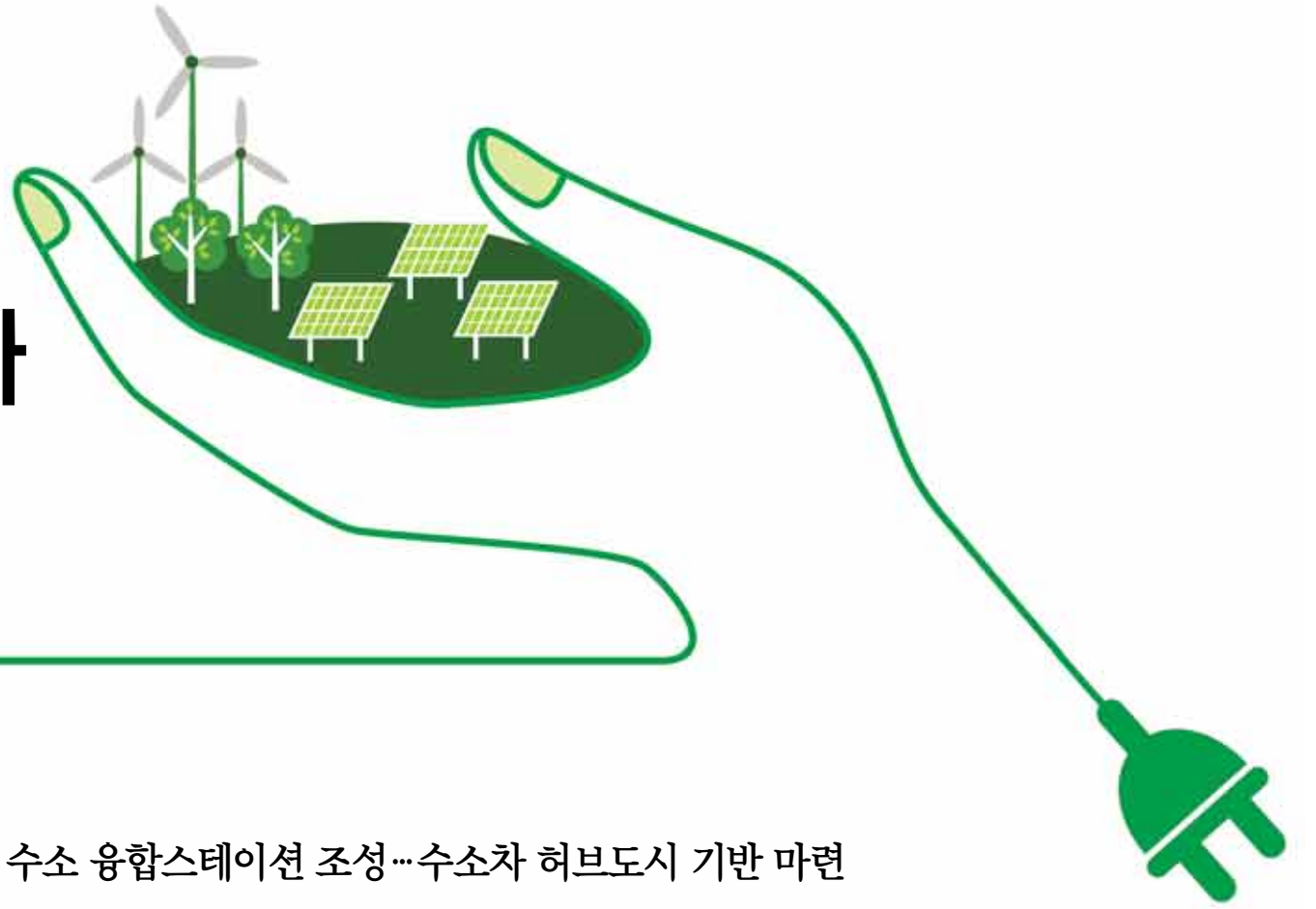


# 그린카 '세계 大戰' 광주, 달릴 준비 됐다



수소 융합스테이션 조성...수소차 허브도시 기반 마련  
창조혁신센터, 연구기관·전자부품 등 인프라 구축 박차  
국비 지원 없인 어려워...대전 공약 이행 정부 의지 필요

##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벨리

### 4 친환경차 거점 도시

국산차와 수입차 등 전 세계 자동차업체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친환경차 대전(大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친환경 미래자동차 기술 및 생산허브도시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선 당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공약에는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지 등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가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수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나서는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기술 및 생산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를 '수소 경제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문을 연지도 1년이 됐다. 인프라를 차근 차근 갖춰가고 있는 셈이다.

### 친환경차 경쟁 치열

올해 신차(新車) 키워드는 '친(親)환경'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출시될 신차는 국산차 20여 종, 수입차 70여 종 등 총 100여 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량이 221만대로 전년 대비 17%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의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는데, 연료 효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크스바겐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디젤 엔진 개발에 집중하던 유럽 제조사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친환경차 신차에 집중하는 추세다.

환경부도 올해 하이브리드차(HEV) 3만4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3000대, 전기차(EV) 8000대, 수소차 71대 등 총 4만1471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보급한 3만3000여대보다 약 25%(8000대)가 늘어났다.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보조금 및 세금감정 혜택을 부여한다.

이중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로 증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7만7272대가 보급됐다. 지난해 총 3만8629대가 팔렸다. 전체 누적대수의 약 21%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시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다양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 친환경차 메카 발돋움

광주 자동차산업벨리조성사업에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생산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포함됐다. 친환경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 및 수출 전략 허브도시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우선 수소 융합스테이션·수소버스 등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수소차 산업 선점 여건을 마련하고, 강소기업 육성, 수소차 양산 도시 준비, 인력양성, MICE 산업 연계 등으로 명실상부한 '수소차 허브도시 광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할 'FCEV(수소 연료전지차)&EV(전기차) 융합충전스테이션 플랫폼 실증사업'은 기존 수소만 공

급하던 충전소 개념에서 가스, 전기, 열 등 다양한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수소 사회 구현의 중심지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가 전담해서 지원하는 광주 창조경제센터는 자동차 연구기관, 전문 전자부품기업, 완성차 공장 등 광주의 풍부한 인프라에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전문 역량을 더해 광주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이끄는 핵심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광주는 차근 차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요청' 이유로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따라서 예타 결과와 별도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뒤 내년 2월 예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재부가 예타에 등장한 시장의 공

약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도 예산 편성 과정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수준인 적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 관계 재설정, 원·하청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핵심이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가 현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인 임금체제 개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타에 '광주형 일자리'를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한 것은 광주에 사실상 노동개혁 실험을 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간 62만대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지역 내 우수한 기업들, 자동차부품 혁신 지원기관과 우수 인력 등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 광주라는 작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어려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기고

### 그린카는 광주자동차벨리 조성을 완성하는 열쇠

오영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광주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8년 광주에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동차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8년 현대차에 흡수 합병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전국 최고의 노동 생산성을 지닌 공장으로 광주의 중요한 경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이

친환경차로 급격히 바뀌면서 국내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광주 자동차산업도 제2의 부흥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생산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 투자를 늘려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도 다른 나라처럼 독자적 기술로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지위를 잃고 일부 생산 역할만 수행하는 나라로 전락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자동차벨리조성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 완성차 업체의 국내투자 기피요인이 노동생산성, 고임금, 생산비용 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제 2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그린카는 클린디젤에서 나아가 이제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자율주행차로 시장의 번복점을 맞고 있으며, 그린카는 이제 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다행히 광주는 전반적인 여건과 시기를 잘 맞추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6기에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여 노사민정을 아우르는 사회 대통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자동차의 전후방산업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광주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한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자동차산업을 추진할

유관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문제를 해결했던 광주정신에 비추어볼 때 자동차 제조업 번복점의 시기에서 그린카는 광주자동차벨리조성을 완성하여 제2의 광주 제조업 부흥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시와 함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획에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까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심체가 되어 일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유관기관과의 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기반 조성을 위한 중국과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 및 광주에서 처음 진흥원내 설치된 수소융합 충전소를 거점으로 수소사회로 가는 인프라 조성과 기술개발 및 기업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제조업 살리기 차원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린카 산업 육성은 광주자동차 벨리 조성으로 가는 필수적인 열쇠가 되었다.

이 힘찬 도약이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과 풍요로운 광주공동체 및 광주의 부흥을 알리는 광주 정신으로 되새김되리라 믿는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